

신직업 조사로 살펴본 보건복지 분야 직업세계 변화

김중진*

I. 들어가기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정보 기술이 전 산업에 접목되고 플랫폼에 기반한 신사업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치 못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향후에는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전 직업의 공통역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세계의 변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그 변화속도가 빠르고 산업 간, 직업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언어모델 성능개선 훈련사인 프롬프트엔지니어(Prompt Engineer¹⁾)가 신직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멸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생성형 AI모델의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앞다투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파생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국고용정보원은 2013년부터 매년 신직업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600여 개의 후보 신직업을 발굴하여 정보서로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연구 내용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반영하였다.

10년째로 접어든 2022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신직업을 연구하였다. 보건복지 분야는 초 고령사회 진입²⁾(통계청, 2022)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

1) 이들은 생성형 AI의 대화체 명령어인 ‘프롬프트’를 설계, 테스트, 개선하는 사람이다.

2)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2년 신직업 조사(1차 연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직업과 현장에서 바라본 직업세계 변화를 소개한다. 본고에 걸쳐 자세한 내용은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를 참고한다.

II. 직업세계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는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학적 요인이 포함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능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 요인 등이 정부의 정책과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 직업에서도 일자리의 변화와 함께 요구 지식이나 기술(Skill)이 변화하기도 한다.

2020년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 5판에 따르면 국내 직업의 수는 총 12,816개로 지난 통합 4판(2003~2011년 조사)에 비해 3,525개의 직업이 추가되었다.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유튜브로 대변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비롯하여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전문가(딥러닝 등), 빅데이터분석가, 드론조종사, 블록체인개발자, 사이버포렌식전문가, UX/UI디자이너 등이 새롭게 등재되었다.

한편 고령화, 저출생,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장의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직업이 나타났으며 취업난에 따른 정부의 창업활성화 지원 정책과 은퇴인력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귀농귀촌상담원,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등도 등장하였다.

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제조업은 물론, 문화예술, 식품, 농업, 건설업 등 전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업무방식 혁신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수행한 한국직업사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 디지털기술이 접목되면서 식물공장재배원, 데이터라벨러, CCTV관제요원 등이 나타나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었다. 또한 기업경영혁신, 유통방식의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상호 연계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실시간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PD를 비롯하여 데브옵스엔지니어, 그로스해커, 상품공간스토리텔러 등이 신생 직업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기존 직업에서 일자리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증가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사무, 제어 등의 업무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자의 경우 향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경영 확산에 따라 경영에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하는 ESG 사무원 및 컨설턴트 등의 일자리도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물류, 배달, 서빙, 순찰 등 서비스로봇 시장의 확대로 로봇개발자를 비롯하여 로봇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할 인력(로봇SI전문가³⁾)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분야는 현대, 삼성, KT 등 대기업 진출과 함께 협동로봇과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능형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 동작을 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정비원을 비롯하여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및 잔존가치 평가,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담당할 전기차사용후배터리평가사 직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와 조선해양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운용에 따라 2030년 중반에는 육상 센터(Shore Control Center)에서 근무하며 고도의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육상운항사(Remote Operator)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10년 이후 직업세계 변화 요인별 신생직업

변화요인	세부 요인	주요 신생직업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생, 고령화 - 1인가구 증가 등	반려동물장 의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동물보건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과학기술의 발전	-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온라인화 등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분석가, 블록체인개발자, 사이버포렌식전문가, UI/UX디자이너, 클라우드컴퓨팅전문가, 데이터라벨러 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미용, 여가, 친환경 등 소비욕구 다양화 및 세분화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라이브커머스크리에이터, 수납정리전문가, 창업기획자, 치유농업사 등
환경과 에너지	-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관심증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온실가스컨설턴트, 기후변화전문가 등

3) 로봇SI(System Integration)전문가는 에어콘 설치기사처럼 제조업체나 산업현장에서 제조된 로봇을 작업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변화요인	세부 요인	주요 신생직업
법제도 및 국내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 일자리 성장을 위한 법제도 신설 - 자국보호 등 해외 규제 강화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연구실안전전문가,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주거복지사 등
기업 경영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성장을 위한 신성장 사업 도입 및 국내외 환경 변화 대응 강화 	ESG경영전문가(지속가능경영전문가), 디지털마케터, 데브옵스엔지니어 등

출처: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발굴 신직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사전 221년, 2022년 한국직업사전발간사업 최종보고서 등 자료 종합

Ⅲ. 신직업 개념 및 유형화

신직업 선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신직업의 개념, 시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신직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신직업이 나타난 시기도 알 수 없다. 때로는 직업인지, 직무인지, 하나의 일자리 수준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신직업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신직업은 새롭게 나타난 직업으로 기존 직업과 비교하여 ‘수행 직무’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Skill)’이 다른 직업이다. 신직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직업에서 분화 또는 통합되어 등장하기에 기존 직업과의 경계를 확인하기란 더욱 어렵다. 더욱이 직업특성은 생물처럼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변화하며,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호 융합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직업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한편, 직업(Occupation)을 관련 직무(Job)의 묶음으로 본다면 신직업은 태동기 혹은 성장기에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신직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직업’이 되려면 적정 규모 이상의 종사자가 존재하고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임금도 괜찮은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신직업(New&Emerging Occupations)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본다. 미국에서는 신직업을 기존 직업과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Skill)이 다른 직업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직업과 향후 일자리가 증가할 부상직업(Emerging Occupations)을 함께 포괄하여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서 찾고 있다(The National Center for O*NET Development, 2006).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판 O*NET(JILPT, 2020)에서 직업과 함께 직무 또는 취업알선 직종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직업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직업보다 하위 단위인 직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직 직업으로서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직무를 토대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신속히 포착하여 최신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직업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함께, 국민들에게 직업세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올바른 진로선택을 지원하려는 신직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직업의 범위를 광의로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과 배경에 따라, 신직업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첫째,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둘째, 국내에 새롭게 나타난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셋째,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직업 및 기존 직업이지만 정부의 육성지원을 통해 전문화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

한편, 직업의 생성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직업 발굴 및 육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직업 범위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 ① 유형 I: 국내에 없는 직업, 또는 국내에는 인지도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착되었거나 전문화된 직업(예, 화장품안전평가사, 사회시설평가사 등)
- ② 유형 II: 현재 태동하고 있는 직업(예, 모바일헬스케어코디네이터, 의료바이오3D프린팅 전문가 등)
- ③ 유형 III: 기존 직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직업(기존 직업에서 분화, 전문화 등을 통해 파생 가능한 직업(예, 로봇물리(재활)치료사, 바이오제약공정품질기술자 등))
- ④ 유형 IV: 현재 국내에 있으나 전문화, 제도화가 필요한 직업(예, 스포츠타레이너 등)

IV. 보건복지 분야 신직업 조사 영역과 방법

1. 조사영역

신직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산업 분야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범위에 따라 발굴 신직업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보건산업실태조사, 보건산업고용전망 등에서 제시하는 해당 산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다음 영역으로 상정한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87)
- 제조업의 의약품제조업(21), 의료기기제조업(27), 화장품제조업(20423)
- 의료서비스업(86) 등

신직업 여부 등, 직업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 범위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직업분류체계(2018)를 기준으로 보건복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 세분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세분류와 연계된 한국직업사전 등재 직업을 보건복지 직업으로 상정한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도 로봇, 인공지능, VR·AR 등의 디지털기술이 접목되고 있어 관련 직업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넓게 보면 기계, 화학, 정보통신 등의 공학이나 연구 분야의 직업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직업분류체계(2018) 기준, <보건복지> 직업은 대분류 3의 「보건·의료직」을 비롯하여 대분류 2의 중분류인 「사회복지·종교직」을 포괄하여 접근한다. 제조와 연관하여 제약 및 바이오 분야 직업(대분류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의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을 비롯하여 기술융합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도 포괄한다.

2. 조사방법

보건복지 분야 후보 신직업(1차 연도 연구)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보건복지 산업현황과 기술, 기업 동향 분석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지난 7년간 업무보고 자료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신직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보서 및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국내외 일자리를 검토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보건복지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 발굴을 위해 기업, 보건복지 관련 협회,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추천받기도 하였다. 덧붙여 각 분야의 구인공고도 살펴보았다. 지난 3년(2019~2021년) 간의 워크넷 구인공고(보건·의료직 총 111,295건, 사회복지직 총 156,503건, 생명과학연구원 및 시험원 10,685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인공고의 ‘구인제목’과 ‘직무내용’에 제시된 키워드를 취업알선직업분류 세세분류 직업별로 연결하여 직업×키워드별 빈도 값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후보 신직업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자안전전담인력’, ‘케어매니저’ 등의 직업을 확인하였고, 바이오

헬스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신약개발자, 유전자치료제개발자, 세포치료제개발자, 화장품 임상연구원, 재생의학연구원, 의료3D프린팅개발자, 바이오제약공정개발기술자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조사결과

1. 보건복지 분야 직업세계 변화 양상

미래 일자리 성장을 견인할 보건복지⁴⁾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의료기술발전, 건강 및 돌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헬스, 디지털치료기기, 정밀의료⁵⁾, (첨단)재생의료⁶⁾, 아동보호, 청년자립지원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및 지능정보 기술과 로봇 등이 보건복지 분야에 접목되어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의료기술발전, 법제도 신설 및 R&D 투자 등 정부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직업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분석을 포함한 국내외 문헌고찰, 협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한 후보 신직업 46개를 토대로 살펴본 보건복지 분야 직업세계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AI, VR·AR, 로봇,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기술과 도구가 직업에 접목·결합되고 있다.

주요 직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코디네이터, 로봇재활(물리)치료사, 디지털치료기기개발자(기획자), AI신약개발자 등이 있다.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재활과 치료, 돌봄이 이루어지며 모바일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온라인 환경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보건분야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사업이

4)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종사원(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명과학연구원, 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직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정보, 질병정보, 생활정보를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치료법(표적항암제 등)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맞춤의료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6)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한다(첨단재생바이오법제2조(정의)).

정부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약개발 기간을 축소하고 스마트임상시험 기술 개발을 위해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되고 있다.

② 산업 간, 영역 간, 학문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보건 및 돌봄 분야의 융합, 한방과 양방의 결합, 의료·보건·돌봄과 ICT 분야가 결합되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케어코디네이터, 의·한협진코디네이터, 오디오작가 등이 융복합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들이다. 특히 데이터기반, 디지털기술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접목되고 보건복지 분야에 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직군이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기획자,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협업에 따른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③ 신성장 분야의 태동과 정부정책 지원이 맞물려 직업세계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치료기기, 콜드체인물류, 지능형로봇 및 서비스로봇,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⁷⁾)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태동하여 성장 중이다. 정부에서는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투자, 시장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육성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세포유전자치료제개발자, 디지털치료기기개발자(기획자), 콜드체인물류전문가, 서비스로봇원격주행관제사, 바이오제약공정품질관리기술자⁸⁾ 등이 신직업 또는 유망한 직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 주목해야 할 직업

법제도화에 따라 일부 신직업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안전전담인력은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22년 11월 기준, 종사자 수는 1,588명이다. 배치 자격요건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종사자의 99%는 간호사이다.

자립지원전담인력 또한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제화로 탄생한 직업이다.

7) CDMO(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는 계약을 맺고 의약품 개발 및 위탁생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강화, R&D의 고비용, 생산성 한계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화 및 전문화된 아웃소싱 전문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8)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업체들이 공장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공정 및 품질관리(QA, QC) 기술 인력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손지호, 2023).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를 종료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2021년 7월 15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최초로 제시되어 '23년 3월 기준 1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활동이 시작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22년 9월 기준 전국에 3,351명⁹⁾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신직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있지만 시범사업 등 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가 모색 되는 직업도 있다. 로봇재활시장이 태동·확대되면서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로봇재활(물리)치료사가 등장하고 있다.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에 따르면 2022년에 서울대학병원 등 전국 150여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로봇물리치료기기의 규모는 200대 이상이였다. 일본에서는 로봇재활치료기기가 의료기관을 넘어 가정에도 보급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理学療法士(PT)), 작업치료사(作業療法士(OT)), 스포츠트레이너, 건강운동지도자 자격자 등 다양한 직군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로봇재활프로그램의 제공과 프로그램 이후 동작능력 평가 등을 수행하는 로봇재활스태프(Neuro HALFIT専門スタッフ)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의 영역이지만 시장이 확대되면 일본처럼 다양한 직역군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서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정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등 돌봄(케어)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¹⁰⁾. 관련하여 건강 상태의 평가와 관리, 건강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와 조정 등을 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태동하고 있다. 이외 에도 모바일헬스케어코디네이터, 의·한협진코디네이터 등이 정부의 시범 사업 하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신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모바일헬스케어코디네이터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에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종료까지 서비스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3차 개정’(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에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5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9)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2년 9월 자료(www.lst.go.kr)

10)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http://www.korea.kr/special/>)

또한, 새로운 분야가 태동하면서 다양한 직업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개발자, 콜드체인 물류전문가 등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직업으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치료기기¹¹⁾ 개발자(기획자)는 게임, VR·AR 기술을 의료지식과 접목하여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 디지털치료기기를 기획 및 개발한다. 의료 임상적 지식과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등 의료와 ICT 지식·기술이 결합된 전형적인 분야로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아직은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거나,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의사, 임상전문가 등이 포함된 팀을 구성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시스템 영역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후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가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콜드체인¹²⁾물류(Cold-chain Logistics)전문가는 식품, 바이오의약품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물류기획, 설비운영, 운송 등의 업무를 한다. 국내 물류분야에 콜드체인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콜드체인운영관리자 외 물류포장엔지니어(Packaging Engineer), 바이오물류드라이버, 콜드체인물류품질관리자 등의 다양한 직업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콜드체인물류(식품)과 콜드체인물류(바이오)영역은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등이 크게 달라 직업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콜드체인물류(바이오)영역에서는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식품콜드체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동하고 있으나 업무 적응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

웰다잉전문가, 오디오작가, 접근성매니저 등도 복지분야에서 주목할 직업이다.

웰다잉전문가는 고령화시대에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웰다잉 강사 등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9년 원혜영 의원이 입법 발의(웰다잉 기본법)한 기본법 제6조에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현재 관련 협회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웰다잉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1) 건강관리용 웰니스(Wellness) 제품과 달리 디바이스 측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돼 구체적 질병 치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며,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중 하드웨어를 동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SaMD)의 한 종류이다.

12) 식품, 의약품 등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온도로 관리하면서 행하여지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 및 운영을 말한다.

국가수준의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직업화를 위해 웰다잉 실시·지원에 관한 사항 반영 등의 법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오디오작가(Audio Describer)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TV프로그램, 영화, DVD 영상물과 연극, 오페라 등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음성해설을 제공한다. 현재 화면해설작가를 중심으로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신규 수요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 인력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매니저(Accessibility Manager)는 관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에 개입하는 연출가, 실연자, 스태프 등 모든 인력의 접근성 영역을 조정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접근성 매니저가 직업화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 부문 공연예술에서 접근성매니저 직무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장애 공연이 기획될 때 기획자가 접근성매니저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 공연 시 별도의 접근성매니저의 역할을 할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특정한 자격이 있지는 않고, 장애인 접근성 관련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장애예술인들과 작업한 경험이 있는 연출가 및 기획자들이 중심이 되어 접근성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별도의 전문인력 체계는 아직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트래블헬퍼도 장애인의 여행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직업이다

표 2 보건복지분야 신직업 특성 분석

분야	성장배경	주요 후보 신직업	주목할 만한 신직업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 AI,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및 의료기술 발전 - 첨단바이오의약, 정밀의료, 디지털 치료 등 신성장 분야 태동 및 정부정책 지원 강화 	로봇재활(물리)치료사, 의·한협진코디네이터, 의사과학자, 디지털치료기기개발자, 콜드체인물류전문가, 의료인공지능개발자, AI신약개발자, 바이오의약품정·품질관리기술자, 바이오의약품정기술이전엔지니어, 세포유전자치료개발자, 화장품안전평가사, 모바일헬스코디네이터, 서비스로봇원격주행관제사 등	로봇재활(물리)치료사, 환자안전전담인력, AI신약개발자, 콜드체인물류전문가, 의료인공지능개발자, 세포유전자치료제개발자, 바이오의약품정기술자 및 품질관리기술자, 서비스로봇원격주행관제사 등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보건의료 및 돌봄 통합화 추세 - 고령화 및 자립청년,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 대상 확대 및 정부의 정책 강화 	케어코디네이터(통합돌봄설계사), 사회서비스품질평가사, 오디오작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자립지원전담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무장애관광가이드(트래블헬퍼), 지역사회연결전문가, 웰다잉전문가, 접근성매니저 등	케어코디네이터(통합돌봄설계사), 오디오작가, 자립지원전담인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웰다잉전문가, 접근성매니저 등

VI. 결론 및 시사점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한 2022년 신직업조사 결과, 법제도화로 등장한 환자안전전담 인력,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비롯하여 로봇재활(물리)치료사, 바이오의약품공정기술자 및 품질관리 기술자 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 등이 신약개발 등에 접목되고 의료·보건 및 돌봄, 한방과 양방, 문화와 복지 등 두 가지 이상의 분야가 융복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계된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획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제시한 후보 신직업은 양질의 일자리로 구체화되지 못하여 정부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 정보로서 진로선택 및 진로상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세계 변화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존 정착 직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신직업은 아직 태동 중이거나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직업은 기존 직업에서 분화하여 전문화되므로 신직업과 관련된 상위 포괄 직업을 함께 살펴본다. 즉, 생명공학연구원, 로봇공학기술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처럼 상위 단위 직업과 기존 관련 직업도 함께 살펴볼 것을 권한다.

또한 신직업이 직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신직업이 나타난 배경을 보면 해당 직업의 직무, 지식과 기술은 기존 관련 직업군에서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은 분화와 더불어 기존 직업에 통합·흡수되기도 하며 사회의 기능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고령 시대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여 보건복지 관련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량들을 관련 직업군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직업세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직업과 일자리 증가 직업은 그 특성에 따라 달리 활용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도전적인 직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 의료보건 지식과 지능정보 기술이 접목된 로봇재활(물리)치료사, AI신약개발자, 바이오 제약공정품질관리기술자, 세포유전자치료제개발자 등이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웰다잉전문가, 트래블헬퍼(무장애관광가이드) 등의 직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삶과 죽음 등 생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요구되어 중장년에게 추천 가능하다. 한편 영역 간의 융복합 및 디지털기술의 접목이 가속화됨에 따라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그리고 기술활용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가 마련한 융복합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보 신직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지원이 절실하다.

신직업의 성장여부에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규제완화, 시장조성, 인력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직업의 경우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반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워 민간시장으로의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직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유사한 특성을 갖춘 직업을 통합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시장의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모바일헬스케어 코디네이터는 현재 보건소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민간 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갖춘 케어코디네이터, 의·한 협진코디네이터 등과 교육 및 인력양성에서 통합·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웰다잉전문가 등은 강사 수준의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 전문직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업인 유품관리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시니어플래너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조직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 시대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직업에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산업, 직업의 융복합 시대에는 다양한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직군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은 유지하되, 다양한 직군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중진 외(2022). 2022 국내외 직업비교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보건복지 분야. 한국고용정보원.
- _____(2022). 2022 한국직업사전 발간사업 최종보고서-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발간 2차 연도 조사. 내부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_____(2021). 2021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6판 발간 1차 연도 조사 사업보고서. 내부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_____(2021). 기발굴 신직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1개 직업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진흥원(202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3차개정.
- 손지호(2023).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전문인력 확보 방안. ISSUE BRIEFING 2032.6. 한국바이오협회.
- 통계청(2022).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2022.9.29.).
- 한국고용정보원(2021). 라이브커머스PD, 데브옵스엔지니어 등 2021년 경영·사무분야 신생직업 33개 한국직업사전 발간을 위한 <관리·경영·사무·행정 분야> 직업정보 조사결과. 보도자료.
- _____(202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 _____(2020).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 JILPT(2020). 職業情報提供サイト(日本{版O-NET)のインプットデータ開発に関する研究.
- The National Center for O*NET Development(2006). New and Emerging (N&E) Occupations Methodology Development Report.